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6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0월 11일 (음력 8월 22일) 수요일

“3년새 6배” 광주시 수의계약 급증한 까닭은

광주시의 수의계약 건수가 3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의계약을 포함한 재정공시 사이트와 총괄 부서도 제각각이고, 회계 정보공시 공개로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58건에 액수는 28억4000만원에 이른다. 1000만원 이상 전체 계약 1796건의 8.8%다.

2012년 54건이던 것이 2013년 39건, 2014년 28건으로 점차 줄었으나 이후 2015년 61건, 2016년 158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새 5.6배나 증가했다.

액수도 2014년 4억7900만원, 2015년 11억

2014년 28건, 2016년 158건으로 크게 증가
시 “하한선 1000만원→2000만원 조정한 탓”
공시 사이트-부서 제각각...회계공시도 허술

7600만원, 지난해 28억4000만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이같은 수치는 재정공시 내 자료도, 또 다른 통계지인 '계약365'에 따르면 지난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물론 212건에 65억원, 용역 122건에 25억원 공사 161건에 32억원 등 모두 495건에 123억원에 이

르며, 이 중 분청 발주는 158건에 54억원에 달한다.

수의계약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것만 분청 9건, 소방본부 3건 등이다. 12건 통틀어 33억원에 이른다. 재정공시와 계약 365코너의 통계치가 다소 불일치한 셈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 지방자치단

체 재정공시, 각 지자체별 계약365, 여기에 내부망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까지 관련 사이트가 다양하고 관리 주체도 제각각인데다 추출 방법이나 담당공무원의 잦은 변경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시 본청은 회계과, 직속·산하·출자·출연기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등 이원화된 측면도 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매년 8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역시 엉성하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용은 물론 산하 기관 출연금, 축제추진위원회 등 민간위탁 비용까지 모두 포함토록 돼 있으나 광주유니버시티 1주년 행사비 4억9000만원, 광주예술인상페스티벌 3억원 등 1억원 이상 소요된 행사·축제만 13건이 누락됐다. 1억 미만도 광주합창제(9600만원) 등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증가한 건 2년 전부터 불가항력상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 하한선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린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 1억원 이상 고액 수의계약에 대해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아니고서는 그 일(계약한 사업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인 전적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통계 불일치에 대해서는 “워낙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통계상 불일치가 많은 게 사실이고,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입찰을 할 때도 같은 금액이더라도 담당공무원 판단에 따라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 어떤 경우는 공개입찰로 기록·관리하고 있어 애로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은홍 기자



메뚜기 잡아라!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지난달 30일 강진군 작천면 들뜰에 마련된 '제3회 강진 작천 황금메뚜기축제' 장을 찾은 가족들이 누렇게 익은 벼이삭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보는 즐거움 체험을 하고 있다.

Photo漫評

사찰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10일 사실상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가 지금 지난 8월 휴가도 그러했지만 이번 12월 연휴 동안에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 일부를 특히 전남은 살살이 다녀봤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의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지 않으면 존재가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왕에 맡았던 대로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이런 당대표급 인사들이 이번에는 전면에서 뛰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한번 이골고기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 셈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롭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사회자가 말하자 “그러면 맞다”고 덧붙였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 사진=뉴시스



안철수 손학규도 나서라



경기지사까지 했는데...



천밤 더운밤 기릴 때가 아 니제

박지원,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 사실상 공식화

“국민의당, 지방선거 승리하지 않으면 존재 의심스러워”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전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박 전 대표는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지 않으면 존재가 의심스럽다”며 “안철수, 손

학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등 당 대표급 인사들이 이번에 전면에서 뛰는 것이 좋다. 한 번 이골고기 짜 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의 추석 연휴 기간 박 전 대표는 전남 일대를 오가며 대대적 민심잡기 행보에 나섰다. 이에 박 전 대표가 전

남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설(說)이 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전남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번 연휴 동안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 일부를, 특히 전남은 살살이 다녀봤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출마 선언을 한 셈인가 라는 질문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롭다”고 말



했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진행자의 답에는 “그러면 맞다”고 받아들였다.

이용규 기자



장성에서 쉬하세요.

숲과 호수의 정취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

엘로우 시티 장성군